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태어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어

철야정진법문 ⑥

사실로 여러분의 몸뚱어리 걷어잡고 얘기를 해봤든 얘기 안 됩니다. 그건 무정물이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어리가 무정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면 자연히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흘 안에 된다고 했어요. 사흘 안에 견성한다 이래 했어요. 도를 이룬다. 또 조금 미하면 석 달, 그 다음에 삼 년. 천하 없는 바보라도 삼 년이면 된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불문에 들어온 지 오래지 않아요?

오늘 저녁을 계기로 해서 참말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그래서 이 몸뚱이는 작용을 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거 도굽니다. 여러분은 도구를 갖다가 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라디오에 비유하자면 라디오에서 틀림없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노래하는 가수는 서울 방송국에서 노래하거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절대 내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정물이 내일 수가 없어. 또 내가 죽는 법이 없어. 원래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말이죠. 날 것이 없어. 죽을 것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불문에 들어서 도를 통한다 할 것 같으면 영생불멸한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죽을 것이 있어야 죽지. 보고 듣고 말하는 놈 죽을 것이 있어야 죽는다 말이여. 죽을 것이 없어. 또 났어. 날 것도 없어. 났다 하는 것은 전부 헛거, 거짓. 바다에 파도가 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봉 스님 글씨 써 놓은 것, 생불생사불사. 나도 난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래 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저녁에 문제 꼭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면은 내일은 바로 일심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심송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그만 여러분들이 의심하던 거 환하게 알게 됩니다. 딱딱딱!(죽비 치는 소리)

참말로 미안합니다. 더욱 더 부산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 말 한마디 들을라고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한데 말을 다 못해 드리고 해서 미안한 생각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점 다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지나고 한 내일이나 모래부터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해도 괜찮을 성 싶습니다. 오늘 한 시간쯤 할까요?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선문염송에 있는 글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보기 전에 우선 제일 첫째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불문에 들어간 지가 수십 년도 되고 이랬지만 말이죠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으로부터 불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하는 것, 난 이번에 바탕을 준비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바탕은 뭣을 뜻하는 거냐. 제일 첫째로 이거 첫 문젭니다. 이 육신에는 자체지가 없다. 그런데 자체지라 하면 또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합시다. 글을 쓸 때

> **소리도 빛깔도 없는**
> **원래의 이 자리는**
> **'영생불멸' 을 의미**
>
> **나도 난 것이 아니요**
>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는 자체지라 해도 좋고 또 지혜라 해도 괜찮고 한데 자, 어쨌든지 이 육신에는 지혜가 없다. 그럼 지혜는 뭣이냐. 이건 뭣을 뜻하는 거냐. 눈이 보는 것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보거든요. 지혜 없는데 어떻게 볼 겁니까?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혀가 맛보는 것 아니다. 이걸 딱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이거 알아집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또 다릅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로 이거 그릇된 전쟁들입니다. 사고방식들이 달라서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종교가 종교 아니라서 이렇습니다. 종교가 바른 종교 같으면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차차 알게 됩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전쟁하는 것은 순전히 무식한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불문에 들어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련의 헤겔 같은 사람, 헤겔 굉장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런데 잘못 짚었거든. 만일 헤겔이 살아서 서로 맞춰본다면 내한테 항복합니다. 그 절대성 상대성, 그 누구고?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 이도 근사하게 갔는데 잘못 짚었어. 그리하니까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 한데 이건 내일쯤이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몸뚱이는 지혜가 없다. 이건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왜 그러느냐. 눈이 보는 것 아니고 귀가 듣는 것 아니고 혀가 맛보는 것 아니다. 그러나 이 눈이라는 기관을 빌리고 귀라는 기관을 빌리고 혀라는 기관을 빌리고 있다. 이것쯤은 이것만 딱 들고 있으면 저절로 이거 알아집니다. 그러면 나는 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걸 초월한 자립니다. 뛰어넘은 자리에요. 지금 여러분 말이지 몸뚱이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서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서 내 얼굴을 보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이라. 거짓말이 아니라. 그 기관을 쓰니까.

그러나 실은 알고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린데 도저히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다른 데 비유를 할라면 허공에다 비유를 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허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공이 참말로 없다면 산하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 없는 것도 아니라 말이지. 그럼 있다. 산하대지가 나와 있지 않나? 그럼 니 한 번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허공 이것도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겁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이것이 시시한 말 같습니다만 이걸 모르고는 불문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자 사도밖에는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으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혀로 맛깔을 보나 혀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기관은 설사 내가 빌려서 썼을지언정 보고 듣고 맛깔을 보는 것은 딴 데 있다. 딴 데 있으면 뭣이냐. 몰라도 좋아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육바라밀 수행은 불방일 … '보살'

4-5 귀경례

흔히들 선정(禪定)을 닦는다고 말을 하지만 선정이란 확고 부동한 정각(正覺)을 이루는 방법인데 단지 그것만을 한다고 멍청히 도사리고 앉았기만 한다면 이는 정(定)에 계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를 닦으면서도 선정에만 머물러 있지를 말고 어떤 일이건 사리지 않고 모두 다 해나가는 거기에 스스로의 정신이 통일되어 확고 부동한 자세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으로는 반야반라밀(般若婆羅蜜)을 만족케 하고, 따라서 모든 진리를 이러쿵 저러쿵 헐뜯어 희론(戱論)하지 않는다. 또 부질없이 논술(論述)하지도 않으며 헛되이 안다니처럼 씨석받은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는 육바라밀(六婆羅蜜)이라고 하여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선정(禪定), 반야(般若)가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실(實如)히 수행(修行)한다고 하며 이를 실천 궁행하는 것을 불방일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신불인 아미타불은 문수(文殊) 보현(普賢)의 두 보살과 관련이 있다. 문수보살의 성격은 아미타불의 반야의 일면, 즉 큰 지혜를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며, 또 보현보살은 그 실천궁행하는 방면을 특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살은 보디사뜨바 마하사뜨바인데 중국사람은 원래 보리살타(菩提薩唾)로 좀 줄여서 번역을 했다가 다시 그것도 길다고 하여 아주 보살로 줄여서 말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요즘 유나이 티드 네이션즈를 UN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至心歸命禮大慈大悲觀世音菩薩大喜大捨大勢至菩薩摩訶薩(一拜)

앞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아미타불의 덕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부처님 노릇을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은 중생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하는 일면을 나타내 보여준다.

관세음보살의 관(觀)은 부처님 구세주(救世主)이라는 말이다. 세음(世音)이란 우리들 죄악의 많은 중생이 괴롭다, 괴로워 못살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하고 허덕이는 이 세상의 뭇소리라는 뜻이다. 바로 이 자리는 구세주로서 건지는 사람과 우리 중생이 한데 합일된 경지이므로 부처의 심정도 헤아리고 우리들 중생의 심정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격자를 표현하여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번역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이라는 스님이 한 것인데 그 뒤 당(唐)나라 때 현장법사(玄?法師)라는 이는, 이를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라고 바꾸어 보았다. 자재(自在)한 것을 살펴 본다 하는 뜻으로 새겼던 것이다. 그러나 관자재 보살은 인도말에는 더 가깝지만 우리에게는 관세음보살이 훨씬 정답게 들린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괴롭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다 우리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주었으면 하는데서 갖가지 청이며 온갖 소원을 들어서 우리를 곧 건져주시는 어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관자재

> **'관세음보살' 은**
> **부처님 심정 헤아리고**
> **중생 심정 알 수 있는**
> **합일된 경지를 의미**
>
> **괴롭고 죄 많은 중생**
> **구제하고 건져주는 어른**

보살이라고는 보통하지 않는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아무데서도 관자재보살이란 말은 잘 안 한다.

관세음보살은 대승(大乘)의 정신(正信)을 일으킨다. 이 분은 곧 크나큰 대도(大道)의 바른 신앙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이다.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은 바른 생각을 일으키도록 해야한다. 대승이란 무엇인가? 기신론(起身論)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무엇인지 하나를 설명해야 할 것이 있고 무엇인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하나있고 무엇인지 그것을 진리라고 할까, 전 세계를 두루 표현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유일심(唯一心)이라거나, 또는 대승이라거나 아니면 진여(眞如)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대승을 다시 우리 현대어로 말한다면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고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회성 그것은 항상 공도(公道)라야 되고 정당한, 공정한 실체라야 한다. 사회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항상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신앙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환언하면 부처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 증거다. 부처의 씨가 종자가 끊어지지 않은 때인지라, 우리가 나는 부처님 제자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정성을 띠고, 공정성을 실천하고 규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말 제자며, 씨가 되는 도리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희대사(大喜大捨)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하는 것은, 앞의 관세음보살의 경우와는 달리 중생을 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는 크게 기껍고, 용단을 내어 크게 버려야 하고 또 크나큰 위세를 가지고 있는 보살이란 것이다. 위로 부처의 도(道)를 넓힌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위로 부처의 도를 넓히는 데에는 원효대사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이변(二邊)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취하라는 것이다. 두 가지의 극단을 제거하고 공정한 중도를 택하는데는 확고부동한 신앙이 선행조건으로 요청된다. 또 이 신앙을 세우는데는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 세상의 본체(本體)에 대한 뚜렷한 인식(認識)과 악과 사회관(社會觀)이 밝게 이루어져야 하며, 즉 진여(眞如), 법계(法界), 대승(大乘)이라고 하는 그것은 실체를 정확히 알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주관(宇宙觀)을 바르게 가진 다음에 이것은 다 이루어진다.

보통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심(一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글자그대로 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주와 사회의 실체인식, 그리하여 공정성(公正性)으로 풀이되고 또 내가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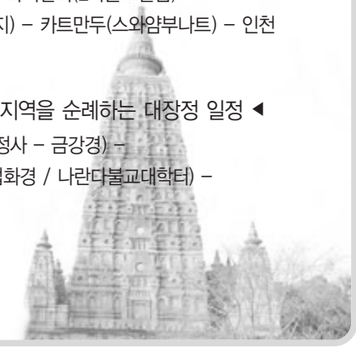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